

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3)

對客言談 不得揚於家醜
(대객언담에 부득양가추하고)

但講院門佛事 不得諷車房
(단강원문불사언정 부득에고방하여)

見聞雜事 自生疑感
(견문잡사하고 자생의혹이다.)

非要事 不得遊州縣
(비요사면 부득유주렴현하여)

與俗交通 令他曾姨 失自道情
(여속교통하여 영타증질하고 심지도정이다)

선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절 집인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지 말고 다만 사원의 불사를 찬탄할 지인정 고방(창고·사무실)을 드나들며 이 일 저 일 듣고 보아 일일이 의혹을 품지 말라. 요긴한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 고을 저 고을로 노닐며 떠돌지 말고 속인들과 서로 사귀어 오가며 다른 이로 하여금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내게하여 도 닦는 뜻을 스스로 저버리지 말지이다.

儻有要事出行 告住持人 及普賢者
(당유요사출행이거든 고주지인과 급관중자하여)

令知去處 若入俗家 切須謹守正念
(알려가도록 들어가거든 절수정념이여)

住社堂 慎沙彌同行 慎人事往還
(주사당하되 신사미동행하며 신인사왕환하며)

慎見他好惡 慎貪求文字
(신견타호악하며 신탐구문자하며)

慎睡眠過度 慎散亂攀緣
(신수면과도하며 신산란반연이다)

공부하는 처소에 머물 때는 어린 사미와 함께 행동하기를 삼가하고 세속의 인사로 오가는 것을 주의하며 다른 이의 잘 잘못을 밝히려 하지 말고 지나치게 문자를 구하려 하지말며 잡 짓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고 인연 경계에 깃들려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할것이다.

若遇宗師至聖說法 切不得於法
(약우종사승좌설법이어든 절부득어법에)

作懸崖想 生退隱心
(작학애상하여 생퇴굴심하거나)

或作憫想 生容易心
(혹작관문상하여 생용이심하고)

當須慎觀地之 必有機發之時
(당수희외문지하면 필유기발지시하며)

不得聽學語者 但取口辦
(부득수학어자하여 단취구편이다)

이일저일에 꼬달려 의혹을 품지 말라 '나같은 범부가 어찌...' 물러서면 끝장

(영지거처하며 악입숙가어든 절수정념장법하되)

慎勿見色聞聲 流涕研心 又况娑婆世界
(신물견색문성하고 유탕사심인데 우탕피급회소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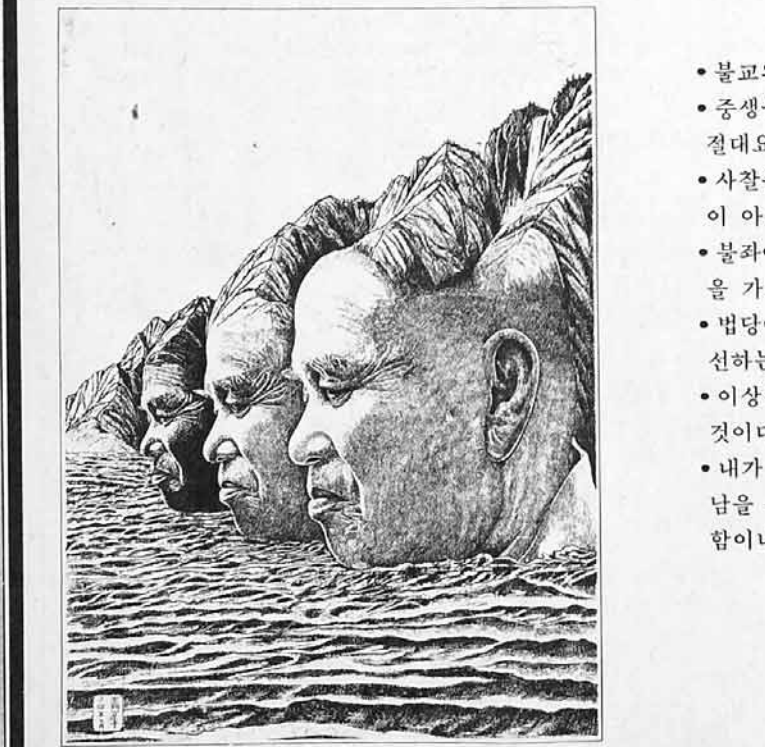
觀說雜事 非時西食 妄作無得之行 深乖佛戒
(남설잡사하며 비시주식으로 망작무에지행하여 심괴불계이다노)

又處賢善人 嫌疑之間 豈有有礙人也
(우처현선인의 혐의지간이면 기유유지해인아리오)

혹시라도 요긴한 일이 있어 꼭 나대려야 하거든 주지나 대중을 뵈옵·관장하는 이에게 고하여 가 머는 곳을 알게하라.
(그때) 만약 속인의 집에 들게 되거든 부디 바른 생각을 굳게 지니고 보고 듣는 경계에 꼬달려 방탕하고 사탕 마음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인 바, 하물며 웃것을 풀어 해치고 웃고 떠들면서 슬데없이 잠된 일이나 지껄이고, 때도 아닌 때에 밥먹고 술 마시며 망녕되어 무에 행을 하노라 하여 부처님이 정해주시신 계율을 크게 어길 것인가?
또(그렇게 함으로써) 어질고 착한 이들과 섞어하고 의심하는 사이가 된다면 어찌 지해있는 사람이라 하겠는가.

龍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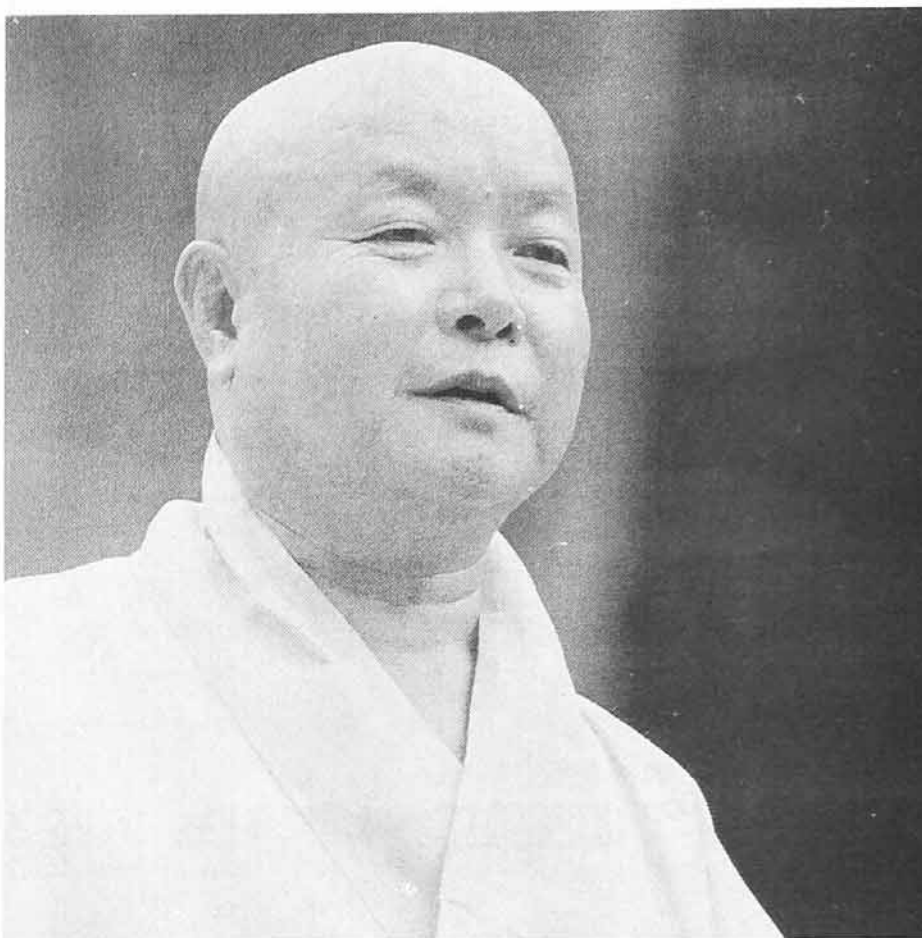
• 성철큰스님 증정취임 법어 山은山 들은 물의 사자 후를 청봉스님이 삼법인 선화로 표현한 불기2531년도 불미전금상 수상 작품임(동국대학교 총장상)



작품규격: 가로 365×세로 543(%)

지상 법석

“중생은 죄 많다고 낮지 않고



원담 스님 <수덕사 방장>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마주 대하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국 불교는 1천6백년의 역사 동안 명맥이 마치 가는 실과 같았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근래들어 불교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만 참다운 불교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불교가 산중 불교가 아닌 중생과 함께 부딪히고 포교하며 수도하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것은 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법문을 듣는 일 자체가 더없이 훌륭한 일이자 밝은 미래불교를 여는 단초입니다.

불교 아닌 불교

현대의 불교는 형식불교이지 참다운 정각(正覺) 불교라 할 수 없습니다. 불교는 나 자신이 나를 깨달는 법이지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신을 믿는 것처럼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지요. 때문에 우리들에게 '나'를 찾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필요없고 형식이 필요없습니다. 비록 절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어느 처마 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 대신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절이나 부처가 있는 곳에 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란 존재는 어디에나 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있는 것이 어디던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나'를 찾기 위해 정진할 수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참다운 나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 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믿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며 여러분들의 풀려지지 않는 신심에 머리 숙여 존경하는 것입니다.

원색무고색(春色無高低)한데 화지자 장단(花枝自長短)이라.
봄빛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똑같이 피어 차별이 없고, 꽃가지는 긴 것 짧은 것이 저절로 그러하다. 그러나 꽃가지가 길건 짧건 분명한 꽃이며 제 나름의 꽃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꽃 모양은 제각기 아름다운데 꽃가지만 길고 짧을 뿐입니다. 여기서 길고 짧다는 것은 시각적 현상인데 길고 짧은 것이 동일하다는 이치를 살필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 주변의 나지막한 산 꼭대기 보다 삼각산 꼭대기가 높고, 한강의 물은 그 보다 훨씬 얕습니다. 그렇지만 한강물과 삼각산 꼭대기를 긴 줄로 대어보면 수평이 똑같습니다. 수평이 같을 때 일체가 평안한 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생은 죄가 많아서 낮은 것이 아니고, 부처는 도를 통해서 높은 것이 아닙니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 도리가 있습니다.

평등한 도리가 있으니까 우리들은 그 도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가야 할 것이라는 승부욕만 있으면 하늘이 여러분의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승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반드시 정신이 있고 알맹이가 있습니다. 알맹이가 있고 정신이 있는 천지(天地)라면 정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헛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드러낼 것입니다. 내가 정진할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

지만 저는 정진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잠도 안자고 먹는 것도 부실하여 몸 가누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나는 어려서부터 이상한 병이 있었어요. 열구리가 걸리는 병인데 무슨 특약도 아니고, 그 병이 일어나면 정신을 졸졸할 수조차 없었어요. 숨도 못쉬어서 무척 고통스러웠는데 발작할 때마다 한 사흘씩은 잠도 잘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으며, 그래서 밥도 먹을 수 없었어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사는 데 숨도 못쉬고, 몸통이 움직이지 못하면 죽을 지경이 되지요. 그 무렵 공부도 무엇이고 어떠한 위

력을 지닌 것인가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러한 병이 생겼으므로 시험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삼과 죽음을 용감하게 끊는다(生死勇斷)는 말이 있는데 이 공부도 가능한 불가능한가를 시험해 보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문득 잠이 들었어요.

가물가물한 잠 속에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림을 들여다 보다가 병이 나서 고통을 받았는데 꿈 속에서 다시 병이 들었어요. 그 그림 속에는 이 세상에서 처음보는 형체가 나오는데 머리가 한 3개정도 더 되고, 입에서 불이 나오며 발톱이 낮같이 생긴 하얀 보

성철스님 무진 법문 선화 소장 안내

- 불교의 근본사상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데 있다.
- 중생을 부처로 만든다는 것은 방편일뿐 현실이데로가 절대요 극락이다.
- 사찰은 불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지 불공하는 곳이 아니다.
- 불좌에 앉아 계신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부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 법당에 계신 부처님 보다 먼저 불우한 이웃돕기에 순신하는 것이 참불공임을 알아라.
-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다.
- 내가 신도들에게 삼천배를 시키는 이유는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자기성찰의 이익을 성취하게 함이니라.

성철큰스님의 열반 1주기를 추모하며 큰스님의 선사상을 널리 고양하고자 법어중 山은山 들은 물을 한국선화의 대가이신 청봉스님의 역작 삼법인 선화를 영인본으로 제작 보급합니다. 성철스님 유훈대로 선화보급의 이익금은 사회복지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10점 1구좌 작품대금: W60,000
- 온라인 계좌
농협: 053-02-064700 (복지회 권오성)
국민은행: 006-21-0567-711 (복지회 권오성)
우체국: 010579-0052194 (복지회 권오성)

※ 입금후 연락주시면 작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급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동문 사회복지회
전화: (02)496-5293 439-6129
FAX: (02)208-7975

-성철스님 법어중에서-